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7/12/12

2017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어제 코미디언/개그맨에 이어 오늘은 스포츠선수를, 이후 영화배우, 탤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17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7년 11월 8~28일(3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31% (총 접촉 5,400명 중 1,70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17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 ‘한국 축구의 희망’ 손흥민
-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빈자리 채울 주자는?
- 10위 안 대부분 양대 인기 종목인 야구, 축구 선수들

2017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 '한국 축구의 희망' 손흥민

한국갤럽이 2017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떠오른 **손흥민**이 38.1%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1위, 2016년에는 근소한 차이로 2위, 그리고 올해 다시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토트넘 홋스퍼 FC 이적 후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현재 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 중이다. 올 시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4호골, 프리미어리그 통산 22호골로 박지성의 아시아선수 최고 기록(19호골)을 경신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맹활약하며 팀의 16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2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은퇴한 '피겨 전설' **김연아**(13.4%)다. 은퇴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맹활약 중이다.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여자 피겨 사상 최초의 그랜드슬램(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4대륙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 달성과 '올포디움'(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내 입상)이란 대기록을 남겼다.

3위는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12.8%)이다. 메이저리그에서 2013, 2014년 2년 연속 14승을 올리며 입지를 다졌으나, 2015년 5월 어깨 수술 후 2년 간 출전하지 못했다. 올해 4월에 복귀 전을 치렀고 24경기에 선발로 나와 5승 9패를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더 안정적인 피칭을 펼쳤다. 류현진은 박찬호, 김병현 등과 달리 한국프로야구(KBO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선수로,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로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1월 배지현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와 결혼을 알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4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캡틴' **기성용**(10.7%)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 AFC 소속 미드필더로, 2014-15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그 해 팬들이 뽑은 스완지 시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복귀 후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강등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내년 월드컵에서 대표팀에서의 활약에도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위는 메이저리그 강타자 '추추트레인' **추신수**(9.4%)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2014년 이후 네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2015년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대부분 기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올해는 큰 부상 없이 149경기에 출전했고 우익수와 지명타자를 오가며 활약을 펼쳤다. 타율 .261, 96득점, 홈런은 22개로 선수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이다.

6위는 '국민타자'에서 '전설'이 된 **이승엽**(8.8%)이다. 그는 KBO리그 1천 906경기에 출전해 .306

타율, 467개 홈런, 1천498개 타점 등 한국 프로야구사에 압도적인 족적을 남기고 올해 10월 3일 KBO리그 정규시즌 최종전 직후 은퇴식으로 23년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7위는 일본 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온 ‘거포’ **이대호**(8.0%),
8위는 최근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이 된 ‘영원한 캡틴’ **박지성**(6.8%),
9위는 전북 현대 모터스의 다섯 번째 K리그 우승을 이끈 **이동국**(6.2%),
10위는 팀 우승과 KBO리그 정규시즌, 한국시리즈 최우수 선수를 모두 거머쥔 **양현종**(5.3%)이다.

이외 김연경(5.2%, 배구), 손연재(5.0%, 리듬체조), 박성현(3.8%, 골프), 박인비(3.6%, 골프), 박태환(3.4%, 수영), 구자철(2.1%, 축구), 이상화(1.1%, 스피드스케이팅), 강민호, 오승환(이상 0.9%, 야구), 추성훈(0.8%, 종합격투기), 전인지(0.8%, 골프)가 20위권에 들었다.

▶ 2017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손흥민	38.1	축구	토트넘 홋스퍼 FC
2위	김연아	13.4	피겨스케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3위	류현진	12.8	야구	LA 다저스
4위	기성용	10.7	축구	스완지 시티 AFC
5위	추신수	9.4	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6위	이승엽	8.8	야구	삼성 라이온즈
7위	이대호	8.0	야구	롯데 자이언츠
8위	박지성	6.8	축구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
9위	이동국	6.2	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
10위	양현종	5.3	야구	기아 타이거즈

질문)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7년 11월 8~28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박지성 빈자리 채울 주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뀌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김연아는 최근 11년간 모두 5위권에 들었다. 은퇴 후에도 팬들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박지성의 빈자리를 채울 주자는 누구일지 주목된다.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 최근 11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김연아(52.0)	김연아(56.1)	김연아(82.8)	박태환(61.6)
2위		박태환(45.4)	박태환(55.4)	박지성(40.7)	김연아(50.0)
3위		박지성(28.8)	박지성(23.9)	박태환(14.5)	박지성(35.6)
4위		이승엽(11.8)	장미란(21.8)	추신수(10.9)	추신수(16.2)
5위		최경주 (5.2)	이승엽(11.5)	박찬호 (9.6)	장미란 (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박지성(57.6)	손연재(37.6)	류현진(51.4)	손연재(42.0)	손흥민(24.4)
2위	김연아(55.9)	박태환(29.1)	김연아(35.2)	김연아(33.3)	손연재(17.5)
3위	박태환(26.0)	박지성(23.7)	손연재(24.9)	류현진(29.1)	추신수(16.9)
4위	이대호 (6.5)	김연아(23.0)	박지성(18.8)	박태환(24.5)	김연아(15.1)
5위	박주영 (5.4)	양학선(16.3)	추신수(17.0)	손흥민(12.9)	기성용(13.1)
순위	2016년	2017년			
1위	손연재(29.8)	손흥민(38.1)			
2위	손흥민(27.3)	김연아(13.4)			
3위	박인비(16.6)	류현진(12.8)			
4위	김연아(14.5)	기성용(10.7)			
5위	박상영 (8.8)	추신수 (9.4)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10 위 안 대부분 양대 인기 종목인 야구, 축구 선수들

10위 안은 양대 인기 종목인 야구,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이며 이외 종목 선수로는 현역 은퇴한 김연아가 유일하다. LPGA에서 맹활약 중인 박성현, 박인비 등 여성 골퍼들은 20위권에 머물렀다. 2017년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큰 국제 대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대에서 올해 최고 활약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고, 특히 10·20대 남성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달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김연아를 상대적으로 많이 답했다.

▶ 2017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손흥민	(2위) 김연아	(3위) 류현진	(4위) 기성용	(5위) 추신수	(6위) 이승엽	(7위) 이대호	(8위) 박지성	(9위) 이동국	(10위) 양현종
전체	1,700	38.1	13.4	12.8	10.7	9.4	8.8	8.0	6.8	6.2	5.3
성 남	846	<u>45</u>	11	13	11	10	11	8	8	5	6
별 여	854	31	<u>15</u>	13	10	9	7	8	5	8	5
연 13~18세	122	43	18	12	12	5	5	8	8	5	3
령 19~29세	276	43	15	14	13	7	8	6	9	5	4
별 30대	274	42	12	13	12	13	6	9	6	3	7
40대	322	35	10	15	10	10	12	9	6	6	7
50대	314	41	12	13	11	10	10	7	4	8	5
60대이상	393	31	15	10	8	8	9	9	9	8	4
남 13~18세	63	<u>50</u>	18	13	13	6	8	9	13	6	3
19~29세	145	<u>51</u>	11	15	15	9	10	6	11	3	4
30대	140	45	11	12	12	12	6	8	6	4	7
40대	163	43	8	14	9	9	<u>16</u>	10	7	3	8
50대	158	45	11	13	9	11	11	7	4	9	5
60대이상	175	40	14	11	10	8	11	10	10	4	5
여 13~18세	58	36	17	11	10	5	3	7	2	4	4
19~29세	131	33	21	13	12	5	7	5	7	7	4
30대	134	39	14	15	12	14	6	10	5	3	6
40대	158	28	13	16	10	12	9	9	5	9	6
50대	156	36	13	13	13	9	9	8	3	7	6
60대이상	218	23	16	9	7	8	6	7	7	12	4

질문)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7년 11월 8~28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